

「2026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 최종 선정 결과 공고

2026 아티스트 레지던시 강릉 입주작가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재)강릉문화재단 이사장



1. 심사개요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비 고
심사일시	2026. 8. 25.(화) ~ 8. 26.(수)	2026. 9. 1.(화)	
심사장소	온라인	명주예술마당	
심사방법	온라인 서류심사	대면 및 화상 면접 심사	

2. 심사위원 ※가나다 순

구분	성 명	현직 및 주요 약력
1	나 현	시각예술 작가
2	신준근	MBC강원영동 미디어사업국장
3	양효실	미술비평가, 서울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 강의
4	이창훈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조형예술·디자인학과 교수
5	조주현	풍피두한화 수석 큐레이터

3. 최종 선정자 명단 ※가나다 순

구분	지원유형	성 명	연락처 뒷자리/국적
1	입주형	이○영	9751
2		정○진	9274
3		Chris○ina Ko	USA
4	지역작가 작업실형	최○정	3043
5		허○빈	1525

※ 오리엔테이션 및 입주 일정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 예정

※ 공통 예비 선정자: 전○영 (4114) / 입주·지역작가 작업실형

3. 심사총평

200여 명이 넘는 국내외 지원자들, 더 듣고 더 알고 싶고 조언해 주고 싶고 지지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분들을 놓고 5명을 고르는, 잔인하고 고된 노동이고 즐거움이었다. 차이를 수호하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점수로 환산하고 줄을 세웠다. 죄를 진 것 같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고, 별별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알게 되었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더 열심히 즐기면서 해야 한다는 것 또 확인했다.

내년에는 강릉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담당자분 이야기를 유출하는 것은 내년 작업 지원서에 올릴 2026 작업 - 이번 기획서에 미래형으로 적었고 내년에는 과거형이 되었을지 모르는 - 을 꼭 진행하시라는 귀뜸이다. 강릉을 사랑하고 예술가를 지지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확산을 도모하는 우리 5명 심사자와 지원자들이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싶었다는 한 심사자 분의 말이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우리는 심사자와 지원자로 만났지만, 우리는 홀로 묵묵히 자신이 잘 하고 좋아하고 해야만 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응원하는, 배경을 차지한 사람들이고, 이번에 떨어진 분들을 위한 "다음 기회"를 축복한다. 행복도 괴로움이라는 말씀은 합격자에게, 괴로움은 다음 행복의 전조라는 희망은 떨어진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 일희일비가 사전에 없는 분들에게는 무한한 존경심을 표하며.

4. 문의처: 강릉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 033-647-6811)